

고흥군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순항'

주민 87% 찬성...담수호 저류지 수면 임대 계획대로 추진 이달말까지 사업제안서 접수, 우선 협상 대상자 연내 선정

고흥군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주민 참여형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순항하고 있다. 흥군은 해장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담수호 저류지 수면 임대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8월 포두면 이장단과 해장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대책위원회에

서 합동으로 실시한 지역주민 찬반 조사결과 총 참여가구 1783가구 중 1557가구가 찬성했다. 조사결과 찬반조사 참여가구수의 87.3%가 찬성했으며 포두면 총 가구(2874가구) 중 54.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은 포두면 이장단과 해장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대책위원회에서는 해장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흥군에 제출해 수면 임대 제안 공고 등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해장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규모는 해장만 담수호 500ha 가운데 100ha에 95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3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읍면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전체 지분의 22%까지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이 완공되면 지분을 가진 지역주민에게 수익창출은 물론 담수호 저류지 수면

임대료 수익 20년 287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20년간 36억원, 발전기금 20년간 140억원이 지원 될 예정으로 총 463억원이 해장만 간척지 관리 및 포두면 발전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이에 흥군에서는 이달 말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금년 중에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하여 지역주민, 흥군, 우선협상 대상자간 협의를 통해 담수호 수면 임대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 통상 자원부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



고흥친환경영농조합, 흥산 석류 내달 10일까지 수매

고흥군이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흥석류친환경영농조합 광장에서 흥산 석류(사진)를 수매한다. 석류는 예로부터 여성들의 몸에 좋은 천연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되어 피부 노화 예방에 좋고, 남성들 또한 전립선암 예방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흥석류는 연중 풍부한 일조량과 온화한 기온으로 석류 재배 안전지로서 국내 다른 지역 및 이란산과 비교해 과피의 에스트로겐 및 폴리페놀 함량이 높고, 과실이 크고 무거운 것이 특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

이번에 수확한 석류 생과는 흥석류친환경영농조합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생과 구매 및 가공제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흥석류친환경영농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흥군 석류 재배면적은 153ha로 올해 석류 생산량은 3470t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흥군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흥석류RIS사업, 흥웰빙유자·석류 특구지정, 상생협력사업 등 흥석류 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



제21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흥산소리명창합동추모공연. 지난 19일 보성군 화천면 판소리 성지에서 제21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가 열려 비조 박유전 선생과 보성소리 창시자 정응민 선생을 추모하는 명창들의 합동 공연이 열리고 있다. <보성군 제공>



구례군-대한간학회, C형 간염퇴치사업 추진

구례군은 대한간학회(이사장 양진모)와 공동으로 C형 간염퇴치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례군은 지난 15일부터 5일간 '대한간학회가 간(肝)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민 350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B·C형간염 항체검사 및 간기능 검사, 빈혈 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20일에는 구례군 보건의원 다목적실에서 대한간학회와 '구례군-대한간학회 C형간염 무상 검진 및 치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12월까지 2700여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성 판정자 대상 RNA 확진·유전자·초음파 등 검사를 진행한다. 최종 검사 결과 C형간염 확진 환자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 이번 사업 대상자는 구례군에 주소를 둔 만 40~79세 이상은 누구나 C형간염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보건의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C형간염 무상 검진 및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군민이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토란 주산지' 곡성서 토란 줄기 박피기계 시연

농진청, 개량형 기계 개발 성공 노동력 절감 효과 90% 달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최근 곡성군에서 토란 줄기 박피기계를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22일 곡성군에 따르면 전국 토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곡성 토란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늘어났지만, 농촌의 일손부족 유통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곡성군 고달면의 토란재배 농업인이 직접 토란 껍질을 손수 벗기고 말리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줄기 껍질을 벗기는

면 관순택씨는 지난 18일 농촌진흥청에서 개량한 토란 줄기 박피기 개발 결과를 본 후 매우 만족했다. 특히 "세척, 절단, 절곡 기능은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토란 줄기 박피기를 개발한 국립농업과학원은 부족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개선해 내년부터는 기기를 영농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농업인이 개발한 가정 '토란 잔뿌리 제거기'도 실제 제품화할 경우 줄기 박피기와 더불어 노동력 절감과 소득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개량과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시원한 가을 바람과 걷기 여행 '섬진강둘레길 걷기' 28일 개최
곡성군에서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2018 가을 우리나라 걷기여행 축제-곡성 섬진강둘레길 걷기'가 오는 28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침곡역에서 가정역까지 섬진강 자락을 따라 숲길과 강변길이 어우러진 곡성 섬진강둘레길 왕복 10.5km 구간에서 진행되며 쾌적하고 이쁜 숲길, 섬진강의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하는 강변길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